

5분 자유발언
제277회 임시회

저출산 해법은 무엇인가



이상곤 의원
(재승1동)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주택구입비·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3.6. 2차 본회의)



원문 보기

발달장애인에 관심과 사랑을

해운대구에는 2024년 1월 등록 기준 장애인이 1만 7395명이고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1547명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주간활동 기관 부족과 예산 문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과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확충하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운대구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부터도 발달장애인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2.27. 1차 본회의)



원문 보기

우동 주민 위한 장산 진입로 개선



원영숙 의원
(우2·3동)

해운대구는 급속한 도시화로 발전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최근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로 등산로 입구가 막혀 장산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체력 단련과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산을 누리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모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진입로와 등산로를 잘 정비해 장산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27. 1차 본회의)



원문 보기

반송 주거환경 개선 근본 대책 마련해야



김성균 의원
(반송1·2동)

실속 없는 도시재생과 임시방편의 환경 정비만으로는 반송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반송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첫째, 반송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청 둘째, 센텀2지구 조성을 위한 (주)풍산 이전 관련 문제 공론화 셋째, 기장군 등 경계 지점의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 갈등 해결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다.(3.6. 2차 본회의)



원문 보기

의회
해운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친환경연구회, 2024년 운영방안 확정



순환경체를 위한 친환경연구회(대표 최은영 의원)는 2월 29일 제4차 회의를 가졌다. 올해 자원순환 인식 변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내 주요 자원순환 및 환경정책 벤치마킹 위한 선진지 견학, 우리 구 자원순환정책 도입과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을 위해 녹색소비교육, 자원순환 및 제로웨이스트 거점화 도입을 위한 사례 발굴, 주민 인식 제고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레저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해양레저연구회(대표 김상수 의원)는 2월 27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해운대 해양레저 특화 사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진행했다. 이날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형 한국해양대 교수의 연구용역 관련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상수 의원은 "해양레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축제연구회, 연구활동 최종보고회



지역축제연구회(대표 박기훈 의원)는 2월 26일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4개월간 설문조사,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경성분석,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지역축제 발전방안을 연구했다. 보고회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강해상) 대표의 주진 경과 보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박기훈 의원은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 지역의 축제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며 "해당 부서와 협조해 예산을 확보,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망복지연구회, 저출산 극복 용역 보고회



희망복지연구회(대표 이상곤 의원)는 2월 29일 '해운대구 저출산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 외에 정책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해운대구에 적용 가능한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 결과 보고를 듣고 정책수립 방향과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곤 의원은 "해운대에 아이울음 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출산 정책 모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